

사회

10개월 활동 마치고 귀국한 5·18기념재단 국제인턴 4명

“값진 ‘광주 정신’ 외국서 더 빛나”

“지난 10개월간 동아시아의 민주·인권 실태를 경험하면서 시민의 힘으로 일궈낸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와 ‘5·18 민주항쟁’의 지력(底力)을 느꼈습니다.”

20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도서관에서 만난 강태욱(23·전남대 4년 휴학)·김지은(여·24·졸업)·양서영(여·23·4년)·이희섭(26·조선대 경제학과 4년)씨. 이들은 인도·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 교육·인권 단체 및 시민운동 등을 위한 NGO 단체에서 10개월간 활동한 뒤 귀국, 기념재단의 자원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학생들은 국내외에서 자원활동가로 접했던 ‘5·18 민주항쟁’의 가치와 민주·인권·평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털어냈다. 이들은 광주의 5월 정신이 민주주의에 목마른 동아

시아 여러 나라에 ‘롤모델’(Role model)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동아시아 민주화 롤모델”

인도 시민인권감시위원회에서 활동한 강씨는 “대학 입학 후 5·18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는데, 인도에서 활동하면서 민주화의 초석이 된 5·18의 가치를 더욱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민주인권단체에서 일한 양씨는 “타국에서 1년간 지내보니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타국(他國)에서 보고 배운 점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착과 함께

5·18의 역사, 의미를 보다 성숙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방글라데시 ‘빈민을 위한 쉼터’에서 일한 이씨는 “문맹률이 60%에 달할 만큼 교육 여건이 열악한데, 국민의 참정권만큼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았다”고 평가했다.

양씨는 “동남아 지역의 경우 민주화가 덜 된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라고 하지만,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미래를 위해 나를 애쓰는 것을 보고 감동 받았다”고 말했다.

“5월 단재 불협화음 아쉬워”

3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5월 관련 단체의 문제점 등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강씨는 “5월 정신의 세계화를 외치면서 정작 관련



국제인턴 자원활동가 4명이 20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동아시아에 미친 5·18 민주항쟁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걷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섭(26)·양서영(여·23)·김지은(여·24)·강태욱(23)씨.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단체들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양씨는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관련 단체들이 갈등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5·18기념재단이 인도·태국 등 민주

인권단체에 파견한 ‘국제인턴’들이 이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난 10개월간의 활동 보고회를 가졌다. 5·18기념재단은 인적교류를 통한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70명의 인턴을 아시아와 미국 등지에 파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959) 김광두



남도 입도 즐거운 남도음식

20일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향토 음식전시회’에서 주민들이 맛갈스러운 낙지전골, 오리탕, 흥어 무침 등 향토 음식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음식은 북구청에서 선정한 전통 음식점 24곳에서 마련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청소년 상습 성폭행범 15년 중형

전주지법, 목포 일대서 범행 40대에 철퇴

자신의 친조카를 2년여간 상습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목포 일대에서 청소년 7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0일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1·노동)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7년간 ‘전자발찌’(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의 신상정

보 열람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던 청소년들을 7명이나 성폭행하고 1명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누락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해 수많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자발찌’ 착용 명령

과 관련해 “피고인의 범행 성향이 비취 상습성이 인정되며 흉기 만료 후에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8월 목포시 한 골목길에서 야간에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1년2개월 동안 목포 일대에서 청소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2007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집에서 친조카 B(20)씨를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화장품 가게 30대 강도 시민이 추격끝 붙잡아

여주인 혼자 있는 화장품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30대가 한 시민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20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흉기를 들고 화장품가게에 침입해 소라치는 여주인을 수차례 폭행한 일모(34)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일씨는 전남 밤 9시30분경 광양시 모 화장품대리점에 침입, 준비한 흉기로 주인 광모(여·30)씨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광씨가 소리치자 얼굴 등을 때린 뒤 달아난 혐의다.

일씨는 길을 가던 A(40)씨가 자신을 쫓아오자 50m 가량을 도주했으나 결국 A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동부취재본부·백영진기자 py4079@

“나영아 힘내”... 후원금 2억원

모금회·가족 지급방법 합의

‘조두순 사건’ 피해자인 나영아가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됐다. 안산시의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영아 엄마 등은 20일 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만나 그동안 접수된

후원금 2억5000여만원에 대한 지급 방법에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나영아에게는 우선 치료비와 교육비, 생계비 등으로 한달에 100만원씩 지급된다.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동주민센터를 통해 공동모금회에 신청하

면 즉시 지급해 주기로 했으며, 나머지 나영아가 만 20세가 되는 2020년에 본인 계좌로 일괄 입금하기로 합의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해 12월 11일 안산에서 조두순(57)이 동료 중이던 나영아를 끌고 가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항문 등의 기능을 상실케 한 사건으로, 조두순은 심신미약 감정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연합뉴스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광주 북구 우수상 수상

광주시 북구는 20일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살기 좋은 지역재단이 주관한 ‘2009 잘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전국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국 144개 기초자치단체, 1천239곳 마을이 참여한 이번 콘테스트에서 북구는 석곡동 ‘성안 공동우물 복원 및 마을돌담 정비사업’을 출품했다.

이번 평가에서 북구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마을의 공동우물과 돌담을 복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서 우물과 돌담을 가꾸고 보존하는 등 성숙된 주민자치 의식을 보여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수험생들 병역 설계하세요” 병무청 고3생 병무강화 호응

병무청이 대입 수능시험을 마친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병무강화과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전남병무청은 20일 “다음 달 16일까지 광주·전남의 34개 고3 학생 4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순회 병무강화과를 연다”고 밝혔다. 병무강화과는 학생에게 각종 병역

정보와 함께 개인의 병역설계 등을 지원하고, 학교 측에서는 수능 이후 대체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병무청은 광주·전남도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강 희망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질문을 접수한 뒤 강좌 당일 일대일 상담을 하는 등 내실을 다

지고 있다. 수강 희망 학교는 광주·전남 병무청 현역인영과(062-230-4248)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전남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고교생을 위한 병무강화를 상설화할 계획”이라며 “희망학교가 더 있으면 방학 전까지 병무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모교 광주 송일고 수여...자랑스런 송일인 추대도

한국 영화계의 거장 임권택(75) 감독이 20일 모교인 광주 송일고에서 입학 58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송일고는 이날 학교 소강당에서 임 감독 부부와 고재유 전 광주시장 등 동문과 재학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졸업장 수여 및 자랑스러운 송일인 추대식’을 열었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학생들은 임 감독이 행사장에 들어서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고 학생 대표들은 꽃다발을 선물하며 환영했다. 임 감독은 서한기 교장으로 부터 명예졸업장과 우등상장을 받았으며 환한 표정으로 감사를 표했다. 이로써 임 감독은 입학한 지 58

년,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지 56년 만에 영광스런 졸업장을 받았다. 임 감독은 장성 출신으로, 지난 1951년 당시 6년제였던 광주 송일중에 입학했으나 3학년 초에 서울로 이사하는 바람에 학업을 중단했다.

임 감독은 “1951년 당시 양림동에 있던 송일학교에 입학해 3년간 다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며 “학업을 중단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졸업장을 받게 돼 경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한기 교장은 수여식에서 “영화감독으로서 한국문화를 통해 세계적인 업적을 쌓아 모든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해 명예 졸업장을 수여한



20일 송일고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은 임권택 감독이 졸업장을 들어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다”고 밝혔다. 한편 임 감독은 이날 송일고에 영화제작 100편을 기념해 영화인들이 수여한 기념패와 영화 DVD 세트 등을 기증했다. /박진기기자 lucky@

Weather forecast for today (November 21st) and a table of regional temperatures across various Korean cities.

전남 상수도관 노후화 심각 최근 2년 누수 손실 630억

전남지역 상수도 시설이 노후화돼 안전한 식수공급 차질은 물론,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전남도가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9천874.5km의 상수도관 중 설치연도가 15~20년 된 구간이 3천281.5km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시군별로는 화순, 무안, 보성은 15~20년 이상 된 상수도관이 전체의 59%에 이르고, 목포와 여수는 각각 46%에 달하는 등 도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또 노후 상수도관 교체 지연에 따른 누수 손실액은 최근 2년 630억6천만원에 달해 재정적 손실과 함께 식수위생을 위해서도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상수도 계량기도 10년 이상 된 곳이 3만9천238곳으로, 전체 25만3천795곳의 15.5%를 차지해 계량기 교체 작업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상수도시설도 도내 2천849곳 중 설치연도가 20년 이상 된 곳이 1천530곳, 10년 이상 된 곳이 718곳으로 전체의 79%에 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법 “전과자는 선고유예 안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없어졌어도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고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0일 알몸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형

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 59조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누우지는 정상이 뚜렷하

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자력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는 예외”라며 “여기서 전과란 범죄경력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효력이 상실됐는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2002년 군무이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A씨는 2008년 6월 사람들이 돌아다니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예비 처남집 인사하러 갔다가 절도

○광주서부경찰은 20일 혼인을 빙자해 예비 처남집에 인사하러 갔다가 금품을 훔친 김모(40)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사는 박모(33)씨의 집 안방에서 금목걸이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결혼할 상대 여성과 함께 예비 처남집에 갔다가 하룻밤을 잔 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금품을 몰래 가지고 달아났는데, 경찰에서 “(박씨의 누나와) 결혼을 하려 했으니 감요당하는 것 같아 포기하고 범행했다”고 진술.

○경찰은 박씨의 신고를 받고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금은방을 상대로 수사를 하던 중 증거품을 확보해 김씨를 검거.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